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인문계)

1. 통합 논술로의 전환과 출제의 기본방향

지난해까지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로 나누어 시행되던 고려대학교 논술 시험이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통합 논술로 출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은 다양하고 심도 있게 사유하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통해 수험생들이 대학에서의 공부를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 유형의 변화를 수험생들에게 일찍부터 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의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출제 경향에 수험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8월 7일에 실시되었던 수시1 논술 시험에서도 모의 시험을 통해 공개된 유형을 따라감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이번 수시2 논술 시험도 수시1과 같은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었으며, 출제 과정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첫째, 본고사형 문제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예년과는 달리 영어 제시문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논술의 주제는 물론 제시문과 논제들도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통합형 논술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러 교과의 상호 연관적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언어와 수리를 별도의 시험으로 치르지 않고 하나로 통합시켰으며 교과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공통 주제에 대해 논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사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한다는 입시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히 답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번 수시2 논술 시험 문제는 수시1 논술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들에 입각하여 i)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ii) 주어진 자료들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iii) 여러 정보와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체계화 하는 창의적 능력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2. 주제 분석과 제시문 해설

2007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2 인문계 논술 시험은 '의사결정의 기준과 방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들과 논제들을 구성하였다. 제시문들은 의사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과 기준, 그리고 이를 구체적 문제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내지 사례들을 담고 있으며, 논제는 이러한 제시문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제선택 및 문제구성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낯설지 않은 주제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논술시험을 치를 경우에는 그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의 유무에 따라 답안작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예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사전지식이 아닌 정확한 제시문 독해능력과 논리적인 사유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시문의 난이도에 유의하였다. 제시문 독해능력을 정확하게 변별하기 위해서는 너무 쉬운 제시문과 마찬가지로 너무 어려운 제시문도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제시문의 난이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통합적 사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제를 선택하였다. 논제를 통해 제시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구체적인 문제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논제의 기본 유형은 수시1의 패턴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끊임없이 내려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도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문제해결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시2 논술시험에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제시문들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독해하여 그 요지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구체적 문제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적 사유능력을 평가하고

자 한 것이다.

제시문 (가)는 '이성이 감정의 도구'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다. 인간의 감정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지향한다. 이성은 감정의 대상들을 비교 분석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성은 그러한 절차를 통해 감정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이성은 감정에 대해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 감정이 지향하는 바가 이기주의든 이타주의든 이성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성은 다만 감정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행동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마련한다. 그로써 이성은 감정에 복무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시문 (가)는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흄과 로크의 견해를 참조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제시문 (나)는 '죄수의 딜레마'로 알려진 상황을 설명한다. 이 제시문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사전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제시문은 2명의 개인이 두 개의 사업 분야 중 한 분야로 진출할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설명한다. 이 제시문에서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주어진 상황에서 결과가 결정되는 방식 (상대방의 의사결정 경우들을 예상하고 각 경우에 따라 자기 자신을 이윤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림). (2) 사업 분야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의사결정요소'가 자기 자신의 이윤이라는 것. (2)의 '의사결정요소'는 제시문 (가)의 관점을 일부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논제 Ⅱ와 연결된다.

제시문 (다)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서 타인의 판단을 추론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어떤 상황에서 타인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를 반성해 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동일한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아서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가진 타인에 대해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진심으로 도덕적 본성에 충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봄으로써, 원칙적으로 타인의 마음도 완전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를 경우 제시문 (나)의 상황에서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제시문은 『중용(中庸)』과 『논어(論語)』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발췌하고, 이 구절들에 대한 『주자어류(朱子語類)』의 풀이를 참고하여 출제진의 의도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현실 상황 속의 의사결정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통상 공학이나

경제학 등에서 의사결정은 주어진 조건 하에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이런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지능력의 한계, 시간과 정보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최적 대안을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대신에 한정된 몇 개의 대안만을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기대수준을 넘어서는 대안을 발견하면 그것을 선택한다. 이 제시문은 사이먼이 주장한 의사결정방식을 여러 논문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이러한 제시문 (라)의 관점은 모든 대상들을 검토한 후 적합한 행동을 결정한다는 제시문 (가)의 관점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태풍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상사례를 통하여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짜 피해자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에게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 조건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각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흔히 부딪치는 문제이다.

이 제시문에서 기술하는 보상 효과의 극대화 대안은 가짜 피해자를 모두 적발하는 대신에 일부만 적발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면에서 제시문 (라)의 의사결정 관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보상 효과를 가장 크게 한다는 면에서 제시문 (가)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3. 논제 해설

이번 수시2 논술 시험에서는 언어와 수리로 나뉘어 있던 종전과 달리 제시문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제도 결합되어 있다. 다만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제를 몇 가지로 구분하였다.

논제 Ⅰ에서는 제시문 (가)의 요지를 밝히고 (가)와 (다)의 견해를 비교하고,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제는 제시문들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과 종합적인

사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와 이해한 바를 정리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가)의 요지를 밝히도록 하였다. (가)의 요지는 이성은 감정의 도구이며 감정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동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성이 내리는 결정은 감정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어서 이기주의나 이타주의와 무관하다는 요지도 그 글에 함께 내포되어 있다.

본 논제의 두 번째 요구 사항은 (가)와 (다)의 글을 비교하는 것이다. (가)는 이성이 감정의 도구이며 감정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 공자는 인간다움의 기준으로 '도'를 제시한다. 공자가 생각하기에 '도'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며 그 의미는 '충'과 '서'로 설명될 수 있다. '충'은 진실된 마음이며 '서'는 그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의 의사결정은 '충'이라는 기준에서 비롯하여 '서'로 실천된다고 할 수 있다. 공자의 이러한 생각은, 의사결정의 면에서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전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제시문 (가)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도 전제하지 않으며 단지 이성이 감정의 충실한 도구로서 기능한다고 한다. 제시문 (가)와 (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교될 수 있지만 수험생의 창의적인 사유에 의해 다른 방식의 비교 가능할 것이다. 수험생은 두 제시문간에 나타나는 입장의 차이를 파악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제는 세 번째 과제로서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문들은 의사결정의 기준과 방법과 관련된 사변적 서술과 구체적 문제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제시문 각각의 내용과 그것들 간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 보편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의 적절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법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가 논술되어야 한다.

논제 Ⅱ는 제시문 (나)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요소가 달라질 경우에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과정에 대한 추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 (다)의 관점이 '서'의 개념을 통해 상대방(친구)을 배려하는 식으로 행동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에는 이런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제시문 (나)의 상황 속에서 반영하는 방식이 '의사결정요소' 속에 자기 자신의 이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임을 추론해야 한다. 다음에는 그런 방식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고(그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수리적 표현을 이용하

여 제시문 (다)의 관점을 '반영하는 정도'에 대한 풀이를 논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논제 Ⅲ은 조사기간이 길어질수록 허위신고 적발건수가 증가하지만 비용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진짜 피해건수에 대한 보상금 총액을 가장 크게 하려면 조사기간을 며칠로 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이 논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총 접수건수 중 진짜 피해건수)×(1건당 보상액)으로 정의된 보상의 효과를 가장 크게 한다는 조건이 1건당 보상액을 가장 크게 한다는 조건과 동일함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진짜 피해건수는 허위신고건수를 얼마나 적발하든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표에서 주어진 정보로부터 어떻게 조사기간별 1건당 보상액을 계산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 논제는 제시문에 주어진 조건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풀 수 있으며,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논제 Ⅳ는 "논제 Ⅲ에 나타난 사례에 비추어 제시문 (라)의 관점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술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논제는 언어와 수리의, 그리고 논제간의 통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논제 Ⅲ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논제 Ⅲ의 상황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허위신고를 더 많이 적발할 수 있지만, 조사비용 등이 증가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 (라)의 관점은 모든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좋은 논거가 될 수 있다.

4. 평가기준

수험생들의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논술시험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논제를 세분하여 각 논제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논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논술의 성격상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논술문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경우에는 대체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를 모두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 상투적인 견해나 정형화된 논증 과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견해나 독창적인 논증 과정을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시문을 참고하라'고 했다 해서 제시문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해야 한다.
· 수리적 분석 및 논리적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 논제의 경우, 논리적 서술 없이 수식만 늘어놓거나 단답형 풀이만을 보여주는 경우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